

黃色種 담배에 있어서 雄性不妊 品種의 種子 採取에 관한 研究

1. 花粉과 增量濟의 配合比率이 種子 生産性에 미치는 影響

辛 承 求

韓國人蔘煙草研究院 陰城試驗場

본 연구는 황색종 담배에 있어서 응성불임 품종의 F1 종자의 효율적 채취법을 확립하고자 종자친에 MS NC 567을, 화분친에 NC 82를 공시하여 증량제의 배합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결삭율, 삭당 종자수 및 종자무게, 천립중, 발아율 등에 관한 기초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결삭율에 있어서 증량제의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1 : 5 비율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:10과 1:20 처리구는 5~15% 감소되었고 동일 배합비에서는 저장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삭당 종자수는 배합비 및 저장기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. 배합비가 높아짐에 따라 55~90% 정도 감소하였으며 무처리구는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11~18% 감소되었으나 배합비에 따라 저장기간이 길수록 2~28% 감소되었다.

삭당 종자의 무게는 증량제의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16~23% 감소하였으며 증량제의 배율이 높아짐에 따라 3~89% 감소하였다.

종자의 천립중은 저장기간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배합비가 높아짐에 따라 9~38%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종자의 발아율은 증량제의 혼합비율 및 저장기간의 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